

## □ 화북면

### \*공덕리

고려말엽에 성명미상의 스님이 현탑골(現塔谷)에 불교를 전수하기 위해 공덕사란 절을 짓고 살기 시작했으며 그 후 절은 없어지고 공덕사(公德寺)의 절이름을 따서 공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때 한때는 천상리(川上里)라 불렀던 적도 있으며 대왕사(大旺寺)절이 있었다고 해서 대왕(大旺) 또는 당대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이 있다. 또 탑(塔)이 있는 계곡이라하여 탑곡이란 자연부락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 \*법화리

신라말기 54대 경명왕때(920년경)에 한 스님이 절을 짓고 입산 수도하고자 이 마을에 정착하여 불법을 편다는 뜻으로 마을이름을 법화라 칭하게 되었으며 아랫마을을 하법화(下法華), 윗마을을 상법화(上法華)라 불렀다. 지금은 인가(人家)가 없으나 골짜기모양이 소의 뿔과 흡사하다하여 각(角)골이라 불렀으며 얼마전까지도 5세대가 거주 하였으나 전부 이주하고 빈집 또는 흔적만 남아 있다.

### \*상송리

약 400여년전에 정씨(鄭氏)와 추씨(秋氏)가 피난차 이곳을 지나다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으며 김해 김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마을북판에 지당(池塘)이 있어 이 지당을 중심으로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하여 지당걸이라고 하며 신촌지구의 중심지로 시장이 있었는데 저잣거리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주위 산에 소나무가 많다고하여 상송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오동리

약 500여년전 조선 중종때 안우곤(安遇坤)이란 선비가 마을을 개척했으며 봉황산 밑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봉화리라 칭하였다 한다. 철종때 행정구역이 신녕현에 속했다하여 신녕땅, 영천군에 속했다 하여 영천땅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으며 지금도 오동이 지번상으로 봉하리로, 신녕땅은 오산지번으로, 영천땅과 강변마을은 오리지번을 쓰고 있다. 또한 마을이름이 오동으로 되어있어 오동나무와 같이 속이 비어야 된다는 전설에 따라 지금도 마을 북판을 비워두고 있다하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오동으로 통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오산리

월지(月旨) : 약 500여년전에 황씨와 범씨(范氏)가 마을을 개척하였다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못을 막아 범지(范池)라 부르고 있고 월지는 마을 앞산 모양이 반월(半月) 같이 생겨 월지(月旨)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운산(雲山) : 월성 이씨 이왕삼(李王三)선비가 화동면 생천리에서 이 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며 앞 뒷산이 높이 솟아 구름이 걸려 있다하여 운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옥계리

약 600년전에 경주 최씨가 피난차 왔다가 느리리(琴溪)에서 살았다고 하며 한때는 100여가구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은 느리리에 20가구 정도만 살고 있고, 본마을인 비집걸은 영월엄씨(寧越嚴氏)가 약 300년전에 개척했다는 새마을등 3개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앞에

흐르는 내가 연희석의 구슬같이 둥근 바위로 형성되어 흐른다하여 옥계(玉溪)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용소리

최덕(崔德)이란 사람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마을앞 못에 부들이 많다고하여 부들밭이라 하였고 일제때는 상인평(上茵坪), 하인평(下茵坪)이라 하다가 못에서 용이 등천했다는 전설에 따라 용소리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용소, 하용소 외에 섬마을이 있다. 이 섬 마을은 약 200년전에 마을 양쪽에 못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섬같이 생겼다고하여 섬마 또는 섬마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입석리

옛날 김덕립(金德立)이란 선비가 처음 마을을 개설하여 뒷산 이름을 따서 보현리라 부르다가 동리 입구에 큰 바위가 서 있다하여 "선돌"이라 하였으며 한자의 음을 따서 입석(立石)이라 칭하게 되었다. 또한 이 마을은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 포항과 신령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배나무가 많다고 하여 배나무정이란 마을이 있고 바로 보현산밑에 자리해서 골이 깊다고 하여 짙은김이라고 칭하는 마을이 있다.

#### \* 자천리

옛날에는 보현산을 모자산(母子山) 또는 자모산(慈母山)이라고 하였으며 마을앞을 흐르는 내(川)가 을자형(乙字型)으로 흐른다하여 "자을천(慈乙川)" 또는 "잘라" 라고 부르다가 "乙"字가 빠지게 되고 지금은 "慈川"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자천 1리는 지금의 혼골(混谷)에 약 400년전에 형성되었고 서부리(西部里)라 일컬어져 왔으며 자천 2리는 약 400여년전에 고수곡에 여씨(呂氏)가 처음 개척하였다하며 그뒤 오천정씨가 개척하여 고수동이라 부르다가 서부리의 동쪽에 위치했다하여 동부리라 불려왔다. 자천 3리는 마을 뒤편으로 하천이 흘러 마을의 하천 가운데에 있다 하여 중계리(中溪里)라 불렀으며 약 400여년전에 청주 양씨(淸州楊氏)가 마을을 개척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으며 1914년 행정구역 일제개편시 지금의 자천1, 2, 3리로 개편되었다.

#### \* 하송리

이 마을은 약 450여년전에 강씨가 정착하면서 비옥한 토지에 국화(菊花)가 만발하여 그 향기가 인근에 퍼지게 되어 마을 이름을 국실(菊室), 국골(菊谷)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도로변에 있는 마을을 외국실(外菊室) 또는 거리국실이라 하고 1km안에 있는 마을을 내국실 또는 안국실이라 한다. 이곳은 조선말기까지 신녕현 신촌면 소재지가 있었다고 하며 마을산에 솔(松)이 많아 그아래 있다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하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횡계리

1664년경 김해 허씨가 처음 정착하여 도화리(桃花里)라 부르다가 1701년경 오천 정씨인 만양(萬陽), 규양(葵陽) 형제가 이곳으로 정착하여 마을 한 가운데를 동서로 내(川)가 가로질러 흐른다하여 횡계리(橫溪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